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조계사 인근 두산위브파빌리온에 새롭게 마련한 신규 사무소 현판식. 신재호 기자

종단 백년 위한 선택 아닌 필수

뉴스분석 > '도반HC' 출범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도반HC는 종단 재정확충과 불교계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힘찬 시작을 알렸다. ‘사부대중과 함께 가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반HC는 기존의 조계종 출판사 사업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면서, 불교 경제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종단과 교구의 상생을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종단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 어제오 늘 일이 아니다. 특히 종단 재정의 대부분을 사찰분담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없다. 종단 재정확충과제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에도 중요한 의제였다. 가톨릭과 원불교 등 이웃종교는 일찌감치 종단 내에 자회사를 두고 수익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경우다. 또 창출된 수익은 대사회 기금으로도 회향해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현 집행부는 총무원장 스님 취임 초부터 종단 예산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생수 유통 판매와 상조사업 등을 처음으로 전개해 종단재정에 기여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종단은 2016년 3월 총무원법을 개정해 사업부를 출범시키고, 종단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과거 마인드로는 종단 재정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현대적인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종단을 운영해야 한다

총 매출 300억원, 총 순익 30억원
자회사 10개, 종단기여 15억 목표
역량 재정비...불교경제활동 허브로
재원 확충·사회공헌 사업 등 추진

는 종단 안팎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날 종단을 대표하는 영리법인이 출범함에 따라 종단 백년대계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도반HC는 이제 막 결실을 맺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선포식 또한 도반HC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백장정규의 보창법(普講法)에서 도반HC의 창립 의미를 찾고, 사찰경제를 튼실하게 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7년 전 총무원장에 취임해 주위 염려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출판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또 사업지주회사를 창립하는 것은 종단의 미래 백년, 미래 천년을 위한 초석을 다져보겠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반HC는 앞으로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거목이 되어 종단에 재정적 그늘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함께한 중앙총회의장 원행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 포교원장 지홍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스님 등도 뜻 깊은 첫출발을 축하했다. 도반HC는 종단 사업부 관장 아래 조계종 출판사의 제반 사업을 출판사업부로 일원화하고, 디자인사업부와 유통사업부 운영을 중심으로 행사기획 및 대행업, 미디어 및 오디오 사업, 프랜차이즈사업,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전자상거래업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향후 창업 3개년 내 총 매출 300억원, 총 순익 30억원 이상, 자회사 10개 이상 설립, 종단 기여 15억원 이상 등을 목표로 역량을 재정비해 종단 내부자원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인 불교계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교 경제활동의 허브기관이 되어 종단 발전을 견인하고 대사회적 공헌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이사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총괄이사는 사업부장 각운스님이 맡았으며, 재무부장 유승스님과 포교부장 가섭스님, 감사국장 선혜스님이 이사를,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지낸 김용환 씨가 도반HC 사장을 맡았다. 이날 김용환 사장은 “사업전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모두에게 기여하는 사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종단 사업지주회사 출범에 대해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단 수익사업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효과적인 분야를 폭넓게 발굴하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며 “지주회사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혼자라도 좋다

‘명상대제전’ 멘토 총출동
이번 주말 불교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명상대제전’으로 현대인의 마음을 토닥토닥 달랜다. 베스트셀러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저자인 국민멘토 해민스님의 강연부터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집중 수련회까지, 내로라하는 스님들의 무대 법문과 강연, 명상 단체들의 부스 전시 등이 벌써부터 마음을 설레게 한다. 행불선원장 월호스님의 법문과 행불싱어즈의 춤과 노래가 함께하는 ‘대명관찰’ 무대, 조계종 제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강연, 해민스님 직접 참여하는 청년고민상담과 음악콘서트,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 귀에 쏙쏙 들어오는 대중 법문은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좀처럼 만날 수 없는 명상 프로그램도 다채

롭다. 성주 자비선사 지운스님이 ‘견기 선명상과 다선일미 차명상’, 참불선원장 각산스님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명상의 효과’를 주제로 직접 나서 명상 실참을 지도하며, 서울 목우선원장 인경스님은 한국명상지도자협회와 함께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9가지로 분류한 에니어그램을 바탕으로 ‘명상상담 에니어그램 집중수련회’를 실시 진행한다. 이와 연계해 박람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1시 펼쳐지는 집중 수련회에서는 총지명상센터장 동진스님, 김창중 동양대 교수 등 상담심리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선보이는 ‘데마존’ ‘상담존’ ‘체험존’ ‘나눔존’ 등의 부스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숨 쉴 틈 없이 굴러가는 바쁜 일상에서 오롯이 나와 만나기란 쉽지 않다. 잠깐의 여유도 없이 쫓기듯 살아온 당신, 혼자여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도 좋다. 이번 봄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펼쳐지는 ‘명상대제전’으로 떠나자.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채식day 기부day’ 입소문타고 확산

목요일 채식 번개모임
한솔복지관 식단 제공

‘연기적인 삶, 생명살림의 삶, 나눔의 삶’을 모토로 진행되는 생명살림 캠페인 ‘채식day 기부day’가 입소문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채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살림의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동참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대한불교청년회는 매주 목요일 채식실천을 위해 ‘채식 번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살림 캠페인 선포식을 계기로 전법회관과 조계사 인근에 근무하는 신행단체 실무자들이 채식으로 모이게 됐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한 끼 채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같이 하면 쉽게 동참할 수 있고 환경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며 “신행단체 간 현안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성원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매주 목요일 카카오톡으로 채식 모임에 참가 가능한 사람들을 모

으고 조계사 인근 삼소나 승소 등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함께 점심을 먹고 전법회관 1층 바라밀에서 커피를 먹은 뒤 모금함에 기부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단체들 사이의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도 생명살림 캠페인 선포식 이후 매주 목요일 점심을 채식 식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솔복지관은 ‘주민이 건강해야 마을이 건강하다’를 모토로 내걸고 채식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복지관이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효과를 거두며 반응도 좋은 편이다. 관장 가섭스님은 “채식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들로부터 소화도 잘 되고 건강을 챙겨줘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님오신날 이후 기부도 실시해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포교사단도 12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 4회 포교사의날 및 출범 17주년 기념법회에서 실천서약에 대거 참여하며 생명살림 캠페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태규 기자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사회노동위 성명서 발표

3월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용스님)가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국내 외국인노동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회노동위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자비와 포용, 상생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인종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적수 기자 jsahn@ibulgyo.com

교수초빙 공고

자비를 구현하고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인재 양성에 힘쓰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능한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모집학부	초빙 분야	인원	모집구분
불교사회학부	포교사회학상당학 전공	1명	전임

●지원자격

- 초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최근 3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에 3편(300%) 이상의 등재실적을 가진 자
- 재가자는 불교신자로서 오계를 수지하고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동의하며 교육에 열의가 있는 자

●제출서류(3개월 이내 발행본, 각 1부씩)

- 지원서 및 이력서 - 본 대학 양식
- 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사, 박사)
-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 연구 실적목록 - 본 대학 양식

- 석, 박사 학위논문 및 최근 3년간 연구 실적물(PDF파일 제출)
- 기타 국가공인 자격증 사본
- 신행사찰 주지스님 추천서(재가자에 한함)

●제출마감 : 2017. 4. 6 (목)

●기타

- 심사결과는 개별통지 합니다.
-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신고접수증(등록증명서)과 국문 번역본을 공증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본인 서명 명기)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 및 문의처

(10118)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031)980-7713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벽산 원행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